

## 보이지 않는 어린이를 보고 싶다

---

저자 (Authors)	박숙경
출처 (Source)	<a href="#">창비어린이 13(3)</a> , 2015.09, 21-32(12 pages) <a href="#">Changbi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13(3)</a> , 2015.09, 21-32(12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창비어린이</a> Changbi Publisher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0953">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40953</a>
APA Style	박숙경 (2015). 보이지 않는 어린이를 보고 싶다. 창비어린이, 13(3), 21-32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4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보이지 않는 어린이를 보고 싶다

박숙경 bigender@hanmail.net

## 1. 근간의 유년동화를 읽는 딜레마

2000년 이후 나온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열 편 미만으로 정전(正典)의 선상에 놓일 작품과 주인공을 고르라면 어렵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릴 유년동화와 주인공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것은 나쁜일까. 2011년 『창비어린이』 봄호에 「유년문학, 대세를 거스르자」는 글을 쓴 이후 더욱 애타게 매력적인 유년동화와 만나기를 고대했지만 맘 맞는 짝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혼기를 놓치지 않고 결혼하겠다는 일념으로 백 번의 맞선에 나가는 노처녀의 심정이다. 이런 이를 보면 주변에서는 ‘눈을 좀 낮춰 보라.’ ‘현실을 직시하라.’라는 조언을 하겠지만, 당사자는 자신이 까다롭게 조건을 따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지 답답할 노릇이다. 오히려 조건을 따지면 고르기가 좀 더 수월했는지 모른다. 요즘은 무슨 무슨 공주, 왕자, 마녀, 아롱다롱 귀여운 동물 이름, 무슨 모험, 대소동 같은 말을 머리에 달거나, ‘~할 거야!’처럼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의 동화도 많다. 바야흐로 유년동화의 ‘스펙’ 과열 현상이다.

- 朴淑慶 계간 『창비어린이』 편집위원, 아동문학평론가, 번역가. 평론집 『보다, 읽다, 사귀다』를 내고,
- 『벽장 속의 모험』 『개를 기르다』 『5일간의 화성 여행』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고 선택받아야 한다는 시대의 강박에서 유년동화 역시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일제 시대 현덕의 『너하고 안 놀아』의 노마? 권정생의 강아지똥? 그들은 자기 시대의 산물이자 보물이었기에 지금 그것을 바라는 건 시대착오라는 것을 안다. 외국 동화나 아이들의 열광적 지지를 얻는 만화, 애니메이션 못지않은 것? 마음은 솔직히 조금 있다. 그러나 근래 국적 불명(이라고는 하나 서구풍)의 공주, 마녀가 활보하고, 문학이기보다 애니메이션을 옮겨 쓴 것 같은 이야기는 보면 볼수록 헛헛하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역시 우리는 우리대로 2000년대 한국 이기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와 인물을 내놓아야 맞다. 가깝게는 2000년대 전후로 나온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 2002)의 잎싹이나 『나쁜 어린이 표』(웅진주니어 1999)의 권우처럼, 유년동화에서도 한 시대의 시금석으로 꼽을 만한 주인공, 어린이, 그리고 그 인물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한 작가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근 아동문학, 그중에서도 유년동화 안과 밖의 어린이 상을 살피고자 한다. 어린이 상은 주인공 아이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번에 생각을 조금 달리해 본 것은, 아동문학의 주인공에 거는 절대적 기대치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었다. 평소 작품을 읽고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 중 하나는 주인공이 매력적인가, 그가 무슨 일을 해내는가, 존재감이 뚜렷한가 하는 점이었다. 하지만 현대 동화는 과거만큼 존재감이 분명하고 매사 주도하는 주인공을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설령 그런 주인공이 등장한다 해도 공감이 안 되거나 식상하게 느껴질 때도 많다. 흐릿한 주인공은 흐릿해서 싫고, 뚜렷하거나 영웅적인 주인공은 식상해서 싫고, 이것도 저것도 다 마뜩잖아 하는 동안 요즘 동화에 대해서는 점점 야박하게 평가하고 마치 과거는 풍요롭고 훌륭했던 것 같은 착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말았다. 그러던 중 ‘현재는 어쩌면 인물 상의 조형이 불가능한 시대일지도 모른다. 현대 영국 아동문학의 수작인 존 로 타운젠

드(John Rowe Townsend)의 『침입자』(*The Intruder*)는 아놀드란 아이의 자기 인식을 인물화한 것이고, 필리파 피어스(Philippa Pearce)의 『아주 작은 개 치키티토』(*A Dog So Small*)는 벤이라는 아이가 아닌 그의 심리가 주인공이다.’(후루타 타루히 『아동문학 속의 인물 상(児童文学のなかの人物像)』, 『어린이가 산다(子どもが生きる)』, 世界思想社 1979)라는 글을 우연히 읽고 동화 속의 어린이 상, 주인공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주인공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믿음직한가, 톡톡 튀는 개성을 뽐내는가의 기준만 적용시키면 최근 유년동화는 기준 미달이거나 의욕 과다, 과유불급이기 일쑤다. 그러나 이번에는 작품에 ‘어떤’ 아이가 등장했는가보다, 아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리고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고 싶다.

## 2. 보이는 대로 — 육아의 풍속도

천효정의 『아기 너구리 키우는 법』(창비 2015)은 젊은 부부가 아기 너구리를 입양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람 아기로 키워 낸다는 이야기다. 사실 이 작품은 유년동화라는 범주에 들어가는가의 여부부터 좀 아리송한 면이 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너구리를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유년동화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젊은 부부가 육아를 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부모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 아이보다 부모의 성장에 무게가 실려 과연 유년의 어린이가 자기 이야기로 읽을까 싶은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부모가 이야기의 주체이고 아기는 대상화되어 있다는 점, 아이보다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점은 이 작품을 아동문학으로 평가할 때마다 지적되는 한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현재 한국의 어린이관, 특히 육아를 대하는 태도와 풍속도를 동화로 포착한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다. 바야흐로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육아’다. 앞으로 얼마나 인기가 지속될

지는 몰라도 주말 프라임 시간대의 육아 예능은 이 년이 넘도록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주말이면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남의 집 아이의 성장을 엿보며 그 사랑스러움에 환호성을 지른다. 그러나 같은 날 사회 뉴스에는 기록적인 출산 기피 추세, 아이를 격리하자는 노키즈존(No Kids Zone)으로 상징되는 어린이 혐오, 산후 우울과 육아 우울에 시름시름 앓는 모성의 위기가 보고된다. 지금의 한국만큼 어린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환희와 공포가 동시에, 양극단으로 나타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아기 너구리 키우는 법』은 지나치게 솔직하다 싶을 만큼 한국의 육아 풍속도를 그리고 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궁금해하는 아이를 놀릴 심산으로, 엄마는 동물 보호소에서 너구리인 너를 입양했다고 한다. 아기를 다리 밑에서 주워 온다는, 아이 처지에서 다소 가혹했던 옛 농담의 현대적 변용인데, 여기에는 출산과 육아 대신 반려동물을 택하곤 하는 현대 부부 상(像) — 아이는 반려동물처럼 한 단계 위상이 하락하고, 동물은 ‘반려’와 ‘입양’이란 말에서 보듯 한 단계 올라간 위상 — 이 반영되어 있다. 반려동물과 갓난아기를 묘하게 겹쳐 놓은 이 설정은 어찌 보면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만큼은 부정하기 어렵다. 출발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생명을 가까이 두고 자 하는 즐거운 기대였지만 예상하듯 너구리를 데려온 날부터 고난의 행군이다. 여기서 아기 너구리는 일단 갓난아기라는 존재와 일대일로 대응되지만, 동시에 현대의 부모가 갓난아기를 대하는 관점의 형상화이기도 하다. 천방지축 동물에 가까운 아기를 자신의 사랑과 노력을 들여 비로소 사람으로 키워 냈다는 사실을 아이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무의식도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는 아기가 언어나 글, 예의범절 같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문명의 세례를 받기 전 단계에서 멈추는데, 작품 아래 흐르는 기조는 진화론적 과학주의에 입각한 어린이관이다. 아직 그 영향력이 전멸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어린이의 탄생과 그 존재를 신의 영광으로 여기

곤 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종의 개량과 개선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생학이 어린이 양육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제 시대 신문 생활란에는 어린이에게 정량의 우유를 먹이고, 잠은 얼마나 재우고, 몇 살에는 몸무게와 키가 얼마가 되어야만 한다는 정보성 기사가 넘쳐 나는데 그로부터 백 년이 지난 요즘도 인터넷 게시판과 각종 육아 정보서는 21세기형 우생학을 재생산하고 있다. 아기 너구리를 키우는 엄마 아빠도 아기가 자지 않거나 성장 속도가 느리면 책을 뒤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득달같이 달려간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과학적 정보와 조언이 넘쳐 날수록 부모는 자신의 육아 능력을 못 믿고 심지어 무기력에 빠진다는 것이다. 일본의 아동학자 혼다 마스코(本田和子)는 이를 ‘과학 시대의 축복과 재앙’이라 말한다. 과학 기술의 힘이 어린이의 생을 보호하고 연장해 주었지만 그 대가로 어린이를 키운다는 것의 불가사의함과 신비함을 박탈당하고 부모로부터 미지의 세계에 지불하는 희생의 기쁨을 빼앗아 버린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20세기는 어린이를 어떻게 보았는가』, 한림토포북 2002).

그런 점에서 『아기 너구리 키우는 법』도 한국의 육아 풍속도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저 너머까지 상상을 넓히고 사유를 깊게 하는 문학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해당 작가뿐 아니라 말 못하는 유아에 대한 이야기를 구상하는 작가들이 이어 나갈 숙제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보고 나서야 그간 우리 아동문학이 실제 동화를 읽을 어린이 독자를 의식하느라, 말 못하고 글 못 읽는 갓난아기,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무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그림책이 있는데 굳이 동화가 있어야 할까, 설령 그런 동화가 있더라도 어린이와 상관없이 어른들의 동심 예찬이 되기 십상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갓난아기, 아주 어린 아이가 직접 읽지 못하더라도 그 시기의 어린이에 대해 사유하고 상상하는 동화는 우리 아동문학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그림책이긴 하지만 갓난아기가 대머리 독수

리, 코끼리, 멧돼지, 용, 털북숭이를 거쳐 의젓한 사람 청년이 되고, 그 대신 부모는 늙은 펠리컨이 되어 버렸다는 『내 이름은 자가주』(마루별 2010)는 짧은 이야기 속에 갓난아기부터 노인, 어쩌면 죽음까지 아우르는 인생의 축약본이다. 이런 이야기는 설령 어린이가 직접 읽지 않더라도 이 작품을 읽고 감동받은 어른이 어린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시 좋은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마쓰타니 미요코(松谷みよこ)의 ‘모모네 집 이야기’ 시리즈(전 6권, 양철북 2005)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동생이 생겨 언니가 되어 가는 성장, 엄마로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양육의 시간을 단조로운 생활 속 에피소드 나열이 아닌, 상상과 실체가 공존하는 동화로 형상화하여 현대 일본 아동문학의 고전이 되었다. 아이보다 엄마편의 이야기라는 비판이 없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부모의 이혼까지 이야기하며 당대 아동문학의 금기를 깬 바 있다. 사회적으로나, 아동문학적으로 볼 때 우리도 그만큼 성숙한 유년동화를 가질 때가 되었다. 누워 있는 갓난아기와 말 못하는 아기는 단지 귀여운 관상물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우주와 인간, 인생의 비밀을 품고 있는 미지의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3. 보이지 않는 것에 형상을

요즘 아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어른이라면 트라우마나 충동, 욕구 불만, 분노 장애, 강박증, 퇴행 같은 말들이 별로 낯설지 않고 일상 대화에서도 흔히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EBS의 「60분 부모」 같은 방송 프로그램 덕분에 유아 심리학이 통속화되어 보급되었고, 간혹 선무당이 아이 잡는 부작용이 없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의 문제 행동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숙고해 보는 문화가 생긴 것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너무 문제 행동의 교정, 치료로서만

접근하지 않는다면 아동문학이 어린이의 심리, 마음이라는 망망대해로 나아가 보는 것은 적극 권할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문학인 이상 심리학의 개념을 가져다 아이의 마음 병을 진단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말고, 제대로 동화에 어울리는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임정자의 『싸움괴물 뿔딱』(미세기 2010)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의 억하심정에 형상을 부여했다. 제목에 나오는 ‘싸움괴물 뿔딱’은 동네 형들에게 축구공을 빼앗기고도 말 한 마디 못한 아이의 낙서에서 태어났다. 이 괴물은 자신의 창조주인 아이를 주인님으로 모시면서 거침없이 누구와도 싸움을 벌이고 해치우는데, 예상하듯 처음에는 후련했지만 점차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폭주하고 거대 괴수가 되어 버린 뿔딱을 제어하기 위해 아이가 모종의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낮은 교양 수준의 심리학을 동원해 보자면 뿔딱은 프로이트가 말한 이드(id), 즉 어린아이의 잠재의식, 본능적 충동이고, 폭주하는 뿔딱을 제어하기 위해 노랑 괴물을 만들어 내고 열을 식히는 비를 내리는 것은 자아(ego)가 된다. 가끔 화가 나긴 해도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한 뿔딱은 자신이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을 때면 다시 튀어나올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다만 그럴 때 ‘도로도로도로’라는 주문을 외우면 뿔딱인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 주문은 자아를 더 상급 차원에서 제어하는 초자아(superego)에 해당될 것이다. 그전까지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인간의 무의식을 프로이트가 발견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병산 같은 형태로 수면 위의 작은 인간과 수면 아래 잠긴 거대한 인간을 그렸다면, 이 동화는 21세기 한국에 맞게 아이의 속마음을 간명하고 강렬하게 형상화한다.

프로이트라는 서양 정신 분석의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사람 마음에 한이 맺히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뿔딱이란 괴물의 이름은 사람이 성낼 때 쓰는 ‘뿔따꾸가 났다.’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이름만 들어도 이 괴물이 화와 연관되었음을 짐작



하게 한다. 더욱이 이 괴물은 처음에는 작고 고분고분하지만 점점 무섭게 커지고 주인마저 위협할 정도로 아무것이나 부수고 집어삼킨다는 점에서 옛이야기 속 쇠를 먹는 불가사리, 아무리 먹어도 배를 끓고 입에서 불을 뿜는 아귀와도 닮았다.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오래 살아왔던 이름과 존재를 불러오고 거기에 지금 어린아이의 마음속 화를 더했다. 마치 밥풀을 모아 조물락거리려 불가사리라는 괴물이 만들어진 것처럼 옛것과 지금 것이 어우러져 싸움괴물 뿔딱이 빚어진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뿔딱을 만들어 낸 초등학교 2학년 동수일까. 특별히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보통 사람 아이를 주인공으로 여기고 그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세우는 것이 일반이지만, 이 작품의 경우는 사람 아이보다 그의 분노의 결정체인 뿔딱을 주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글 앞머리에서 잠시 언급했듯 현대 문학에서는 남보다 앞서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전통적 주인공보다, 형태가 없는 감정이나 인식, 철학 따위를 인물화한 것을 주인공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많다. 『싸움괴물 뿔딱』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만 아이가 받는 상처를 확대하고 치유하는 데 골몰하느라 그로부터 동화다운 인물을 퍼 올리고 빚는 데에는 다소 소홀하지는 않았을까. 뿔딱은 상상으로 그려 낸 흉측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 아이보다 정확하고 진지하게 포착한 현대의 어린이 상이다. 뿔딱이라는 괴물의 탄생과 성장, 소멸 과정만으로 이야기는 꼭 찬다. 스토리를 전개시키기 위한 사건과 에피소드를 여러 개 만들어 이어 붙일 필요 없이 좋은 재료를 잘 손질하여 그릇에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요리가 완성된다. 좋은 재료란 바로 좋은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유년동화는 지금보다 더, 눈에 보이는 아이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를 열심히 찾아내어 이름을 붙이고 형상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 좀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 4. 보고 싶은 아이 — 죽음마저 포함한 성장

몇 년 전부터 장편 유년동화에 대한 바람을 드리내곤 했지만, 막상 이상론으로 그렇더라도 과연 그런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그 기다림에 부응하는 작품과 만났으니 이경혜의 『사도사우르스』(바람의아이라 2014)가 그것이다. 이 작품은 최근 유년동화의 흐름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행하고 있다. 고학년 대상 동화 못지않은 책의 두께도 그렇거니와, 화장 안 한 민낯을 보이길 두려워하는 시류를 거슬러 최소한의 삽화만 실은 것도 그렇다. 어린이와 어울리려다 자칫 명랑 발랄함이 과해지는 유년동화가 많은데 이 작품의 전체 분위기는 고요하다. 근데 역설적으로 고요하기에 작고 낮은 소리가 더 잘 들린다. 주인공인 아기 공룡 수와는 그 이름이 머리 위를 지나치는 바람 소리에서 왔고, 귀가 밝아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들으며 그로부터 희로애락을 감지한다. 눈이 피로한 세상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공룡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 쉬고 있던 청각을 열게 하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역행을 꾀하는 유년동화가 아닐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어린 초식공룡이 육식공룡 친구를 만나고,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산을 넘어 바다를 직접 자기 눈에 담은 뒤 집으로 돌아온다는 전형적인 모험물의 스토리를 밟는다. 그러나 막상 작품을 읽어 보면 소년다운, 진취적이고 거칠 것 없는 모험물과는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어쩌면 다른 무엇이 아닌, 공룡이라는 동물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알다시피 공룡은 같은 종 안에서도 비교적 온순한 이미지의 초식공룡과 상대적으로 포악한 이미지의 육식공룡으로 나뉜다. 초식공룡 수와는 육식공룡 시루와 짧은 우정을 나누며 육식공룡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착하고 나쁜 것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삶의 조건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두 어린 공룡은 아주 먼 미래에 등장할 ‘사람’이라는 종에 대

해서 호기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천진무구한 공룡들이 후일 자신들이 멸종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읽는 이로 하여금 아련한 슬픔을 맛보게 한다. 공룡은 현대인이 절대 만날 수 없음에도, 아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동화는 물론 만화와 영화 같은 대중적 이야기에 끊임없이 불려 나오는 존재다. 빌딩만큼 커다란 몸으로 한때 지구를 호령했지만 환경 변화를 이기지 못해 멸종해 버리고 만 점이 아주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음속 깊은 곳의 향수를 자극한다. 아기 공룡 수와 역시 생명력 넘치는 아기 공룡임에도 언뜻언뜻 그가 이제는 죽어 멸종했으며 그가 있는 곳에 우리는 영원히 갈 수 없다는 향수를 갖게 한다. 바다를 보러 산을 넘었다가 곤경에 처한 수와는 동굴쥐의 도움을 받는데, 공룡 발가락보다 작은 이 포유류가 후일 공룡의 멸종에 기여하고(논란은 분분하겠으나) 지구의 주역으로 나선다는 사실은 동화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아도 무심코 보아 넘기기 어려운 장면이다. 후일 그들의 종은 운명적으로 대립하고 그중 한쪽은 멸종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크기나 힘의 차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생명 대 생명으로 만나 교감한다. 문학이 허구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담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테다. 여기서 과학적 사실은 문학의 감동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 보이는 유년동화에 깊이를 더하는 촉매제가 된다.

비슷한 스토리라도 사람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보다 동물, 특히 공룡을 주인공으로 삼았을 때는 여러 면에서 강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성장 리듬은 그 어떤 동물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야기 한 편 안에서 부쩍부쩍 성장시키기 어렵다. 만물의 영장인 듯 거들먹거리지만 태어난 지 한 달, 일 년 지난 어린 동물과 비교해 보면 어린 인간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공룡 수와는 알에서 갓 태어난 뒤 엄마 품에서 짧고 평화로운 유년기를 보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으로 눈을 돌리고, 자신과 다른 종족에게 관심을 갖고 그 차이를 고민한다. 그리고 익숙한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 동경하는 세상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작품 안에 그 시간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껏해야 건기와 우기가 한 번 바뀌는 정도의 시간이고, 그동안 수와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기 공룡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의젓한 공룡 한 마리로 성장한다. 그리고 공룡은 이미 지구에서 사멸한 동물임을 알고 있기에 수와의 성장은 단지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발터 베냐민(Walter Benjamin)은 ‘진정한 이야기는 이야기꾼이 임종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전수될 수 있는 형태를 취한다. 죽음으로부터 권위를 빌려 오는 것’이라 했다(『발터 베냐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1983, 178면). 죽음이라는 끝이 있어 생명의 탄생과 성장, 소멸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죽음이나 그 끝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설령 있더라도 병적인 비관론자로 손가락질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아기 공룡을 보고 그 마지막을 언뜻 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기에 공룡 수와가 미지의 세계로 내딛는 한 걸음, 그가 하는 말, 생각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공룡 수와는 공룡이라는 동물인 동시에 우리가 보고 싶은 어린이의 또 다른 모습이다. 실제 공룡이 이렇게 살고 노래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으니 당연히 인간적으로 허구화된 공룡이지만, 이것을 읽는 독자는 인간이라는 한계를 잠시 넘어서서 공룡의 감각으로 세상과 만나고 성장의 단계를 밟아 갈 기회를 얻는다. 잘 쓰인 동물 의인화 이야기는 이렇듯 탈(脫)동물과 탈(脫)인간이 만나는 경계에서 허구의 진실을 보여 준다. 너무 동물도 아니고, 너무 사람도 아닌 그 미묘한 경계선상에서 나오는 이 같은 인물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 5. 어린이라는 신기루

유년동화 속 어린이 상을 점검해야 하는 숙제를 받아 들고 이런저런 구

상을 한 끝에 단 세 편을 다루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이 작품들은 최근 유년동화들 중에서 작품성이 높거나 훌륭하다는 판단 아래 골라진 것은 아니다. 『아기 너구리 키우는 법』은 아이에게 직접 주는 아동문학으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도 여겨진다. 그러나 세 작품이 각기 다른 개성으로 이 시대가 어린이를 보고, 대하는 관점이나 태도를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포착했기에 이번 자리에 적합한 패널리 되리라 여겼다.

아동문학에 종사하는 어른 중 단 한 명도 어린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지만 어린이라는 존재는 항상 알 듯 말 듯, 손에 잡힐 것 같다가도 가까이 다가서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신기루 같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는 먹고 자고 놀고 자라는 건 똑같지만 시대마다, 나라마다 어른들이 어떤 사고틀을 갖고 어린이를 보는가, 대하는가에 따라 어린이는 천사와 소악마, 천재와 백치, 어른의 부모와 완전히 무기력한 보호 대상처럼 양극단을 오간다. 언어나 논리로 자기표현을 하기 어려운 어린아이일수록 어른은 아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마련이다. 어찌면 침묵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이와 비슷할지 모르겠다. 인간은 신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인간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고 한다. 어른이 아이라는 존재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라는 아이의 순간을 이야기로 포착해 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배우게 될까. 분명한 것은 지금을 사는 어린 인간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조명하면서 동시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인간을 이야기 속에 살게 하는 작업은 아동문학의 영원한 숙제이자 즐거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